

나주시, 지역 명소 활용 공공결혼식장 운영

관내 목사내아·영산강정원·정미소 포토존 등 꾸밈비용 100만원 지원 400만원 한도 콘텐츠 제작 지원도 취향 맞춤형 웨딩홀 장소 확대 예정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명소를 활용한 공공 결혼식 지원사업에 나섰다. 최근 결혼식 비용 급증에 따른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합성어)'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가운데 예식장 대관은 물론 꾸밈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공공 결혼식 신



나주시가 지역 명소를 활용한 '공공 결혼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나주목사내아에서 열린 첫 번째 공공결혼식 모습. 나주시 제공

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나주 목사내아, 영산강정원, 나주정미소 등을 일일 예식장으로 조성해 무료로 대어 한다.

하객석과 무대 단상, 음향, 포토존, 버진로드, 가족스토리 영상 제작, 축하 공연 등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식에 필요한 시설과 콘텐츠도 제작해준다.

여기에 웨딩 메이크업 등 꾸밈비용 100만원을 현금으로 별도 지원한다.

지난달 21일 나주목사내아에서 첫 번째 공공결혼식이 열려 하객들의 축복 가운데 제1호 공공결혼식 부부가 탄생하기도 했다.

시는 향토음식체험문화관을 비롯해 예비부부의 취향에 맞춰 공공결혼식 웨딩홀 장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결혼식 신청 문의를 '나주시 가족센터'로 유선, 방문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비용 부담은 낮추고 행복을 올릴 수 있는 공공결혼식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가정을 이루는 인생의 중요한 시작점인 결혼이 부담이 아닌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논콩 활용 다양화'로 농가소득 견인

벼 보다 약 1.5~2배 높은 수익

전라남도 나주시는 쌀 생산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논 효율적 이용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논콩 재배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논콩은 논에서 재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환 작물로 벼 재배에 비해 노동력과 비료 사용이 적고 국산 콩에 대한 수요가 꾸준해 판로가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동일 면적 기준으로 논콩은 일반 벼보다 약 1.5~2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벼 재배면적을 줄이면서 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논콩 재배기술 교육 및 공작목반 운영에 힘쓰는 한편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사업과 연계해 병해충 저감, 품질 개선, 자동 파종기 기술 보급 등 실질적인 재배 기술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30일에는 다시면 농업인상담소에서 다시문평 공작목반 소속 농업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논콩 재배기술 교육과 함께 농가 사례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다.

나주시관계자는 "지역특화품목인 논콩의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을 지속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지난 5일 나주소방서 직원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빛가람동 호수공원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배나무 검은별무늬병 '흑성병' 방제 당부

비 오기 전후 살균제 살포

국내 최대 배 주산지인 전라남도 나주시가 배나무 검은별무늬병(이하 흑성병) 예방을 위한 농가의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배 개화기부터 열매숙기 시기까지 연속적인 강우가 사나흘 이어지고 저온 다습한 환경이 계속되면서 흑성병 발생 피해가 컸다.

흑성병은 곰팡이균으로 낙엽과 논의 비늘 속에서 월동한다. 어린잎이나 줄기, 과실에 그늘음의 병반이 생기는 과수병으로

4월 하순 경에 주로 발생하기 시작해 5월~7월에 발병 최성기를 이룬다.

15~20도의 온도에 비가 많이 내리는 해에 자주 발생하며 잠복 기간은 어린잎은 1~2주 후, 성엽은 2~3주 후 발병된다.

병원균은 주로 과원 내 낙엽 아래에서 월동하므로 낙엽을 치우고 청결하게 과원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농가에선 비가 오기 전후로 보호살균제와 치료살균제를 교호로 살포하고 연속 강우가 예고될 경우 비가 내리더라도 2일 내 반드시 흑성병 약제를 살포해야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하다. 나주=김용의 기자

종합·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내달 2일까지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6월2일까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이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없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나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나주시청 세무과에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국세청에서 보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9월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6월2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소방서, 어린이 큰잔치서 체험 행사

전라남도 나주소방서(서장 신항식)가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3일 빛가람동 호수공원에서 개최된 '2025년 나주시 어린이 큰잔치' 행사에 참여해 '놀이와 체험으로 배우는 119안전체험장'을 운영했다.

6일 나주소방에 따르면 이번 체험장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돼 많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체험 내용으로는 △소방관 복장 착용 체험 △화재진압 소화기 사용 체험 △심폐소생술(CPR) 교육 △하임리히법 응급처치 교육 △소방차 모형 종이접기 △소방 캐릭터 키링 배부 등이 포함됐다.

화재진압 체험은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상황 속에서 소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화재 대응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돼

논길을 끌었다.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법 교육은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들도 함께 참여해 가정 내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신항식 나주소방서장은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 지식을 습득하고, 위기 상황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체험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전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행정 책임성 확보... 나주 CCTV통합관제센터 체계 개편

전체 관제요원 임기제 채용 연중무휴 실시간 모니터링

전라남도 나주시가 불철주야 시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 전체 관제요원 28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고 5월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이번 임기제 공무원 전환은 민간 업체 위탁 체계의 고용 불안정, 공공성 한계를 보완하고 관제요원의 업무연속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이뤄졌다.

관제요원들은 연중무휴 2200여대의



나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나주시 제공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각종 범죄·재난 감지, 사건 발생 시 경찰·소방 관계기관 신고 대응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

아동·청소년 보호구역이나 범죄취약지

역에 설치한 CCTV의 효율적인 감시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관제요원은 단순한 감시 인력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지키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 사명감과 책임, 의무를 갖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달라"며 "센터요원의 이번 임기제 공무원 전환은 단순한 고용 방식 변경이 아니라 관제 업무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적 전환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 고도화와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도시 나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나주=김용의 기자